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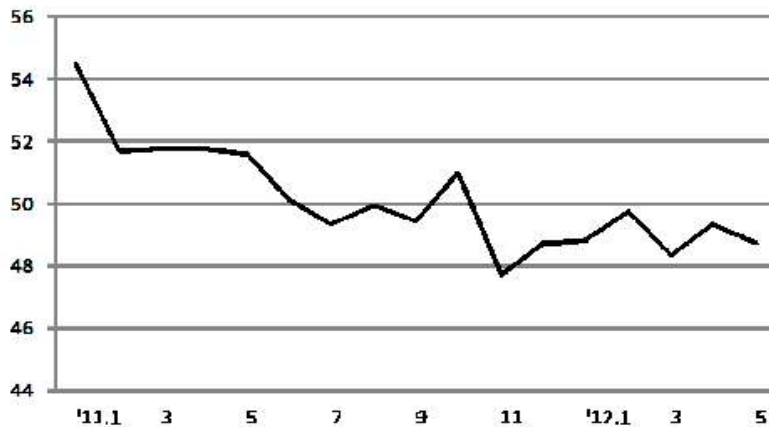
중국, 경기부양 본격화 조짐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중국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며 경착륙 우려가 고조되자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남.

- HSBC의 5월 제조업 PMI(구매자관리지수)가 48.7로 기록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(7개월) 50이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.
 - 중국의 2012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8.1%로 급격히 둔화된 가운데 HSBC의 5월 잠정 PMI가 4월(49.3)보다 더 낮아짐으로써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.

〈그림 1〉 중국 제조업 PMI(HSBC)



자료: HSBC.

- 중국 국무원은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힘.
 - 중국 정부는 2012년 말까지 승인 예정이었던 고속도로, 교량,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(SOC) 구축 프로젝트를 2012년 상반기까지 앞당겨 승인하며, 이에 맞춰 정부 예산을 늘리고, SOC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함.

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고 있어, 경기부양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함.

-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(CCIEE)는 이번 경기부양 조치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조치이며, 후속 조치로 고속철도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세금인하와 인프라 지출 확대,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추가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함.
 -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의 조세부담 축소, 관세인하 등을 통한 수입 확대, 7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내수 진작,¹⁾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함.
- 다만, 전문가들은 가파른 경기둔화에도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.
 -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시장에 투입된 막대한 유동성²⁾으로 생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임.
- OECD는 최근 2012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8.2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,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를 사용한다면 2012년 경제성장률이 9%를 하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함.

(Financial Times 5/22, Bloomberg 5/24)

1) 내수 진작 프로그램에는 1년간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및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총 363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최소 3,000억 위안 규모의 소비시장 창출하는 방안도 포함됨.
 2)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총 4조 위안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가동하였음.